

균여 향가 음독자 3제: 「呂」, 「體」, 「仁」

權 仁 瀚(성균관대)

1. 자료

(1) 「呂」(려)=「理·里」(리)

- ①世呂中止以友白乎等耶(누리히 머물우슬보드야)<請佛往世歌_4>
皆往焉世呂修將來賜留隱(모든 간 누리 닷머려시론)<常隨佛學歌_2>
↔世理都隱之叱逸烏隱第也(누리 모든갓 여히온디여)<怨歌_8>
- ②慕呂白乎隱佛體前衣(그리슬븐 부터 알픽)<禮敬諸佛歌_2>
↔郎也慕理尸心未兒行乎尸道尸(郎이여 그릴 므스미 죽 너을 길)<慕竹旨郎歌_7>
- ③塵塵虛物叱邀呂白乎隱(塵塵虛物스 모리슬븐)<稱讚如來歌_5>
↔刹刹每如邀里白乎隱(刹刹마다 모리슬븐)<禮敬諸佛歌_6>
- ④吾衣身不喻仁人音有叱下呂(내이 모마 안딘 사름 이사리)<隨喜功德歌_4>
吾衣身伊波人有叱下呂(내이 모마 더버 사름 이사리)<普皆廻向歌_10>
佛影不冬應爲賜下呂(佛影 안들 應히사리)<請佛往世歌_10>
↔然叱皆好尸卜下里(그릿 모든 홀 디너리)<常隨佛學歌_7>
逢烏支惡知作乎下是(맛보기 엇디 일오아리(<알-이))<慕竹旨郎歌_6>
- ⑤道尸迷反群良哀呂舌(길 이한 물아 설브리여?)<請佛往世歌_8>

※해독은 김완진 선생의 것을 따른 것임. 이하 같음.

(2) 「體」(테)⇒‘티’

- ①佛前燈乙直體良焉多依(佛前燈을 고티란디)<廣修洪養歌_2>
cf) 佛體⇒부터<1>_②, 3)_① 등 13례>

(3) 「仁」(신)⇒‘인’

- ①法界滿賜仁佛體(法界 츠신(<츠-시-인) 부터)<廣修洪養歌_7>
- ②吾衣身不喻仁人音有叱下呂(내이 모마 안딘(<안-디-인) 사름 이사리)<隨喜功德歌_4>
- ③懺爲如乎仁惡寸業置(懺히더운(<다-오-인) 머즌 業도)<普皆廻向歌_6>
- ④向乎仁所留善陵道也(아온(<아으-오-인)디로 므릭 길히여)<總結無盡歌_6>

2. 기존 논의 검토

(1) 「呂」(려)=「理·里」(리), (2) 「體」(테)⇒‘티’

- ①“「呂」(려)가 「리」에 仍借됨은 「禮」(례)가 「리」에 慣用됨과 倣此하다. 共히 그 上半音 或은 通音에 依한 것이다.

儒禮尼叱今, 一作世里智王. (遺事·王曆)

丁吏, 盖丁壯之人, 初置吏者也.

舊說轉爲頂禮，蓋是語音訛謬。(宣和奉使高麗圖經卷廿一·阜隸)”
 <양주동(1942/1954), 『고가연구』, 박문출판사, p.677>

② 2. 慕呂白乎隱佛體前衣

“첫머리의 ‘慕呂’가 ‘畫’의 뜻을 위한 義訓借입은 분명하나 末音添記로서의 ‘呂’字가 설명하기 쉽지 않은 존재다. 이미 慕竹旨郎歌에 ‘慕理尸心未’가 있어 이 동사의 어간이 中世에 있어서와 같이 ‘그리-’일 것이 명백하고 普賢十願歌 안에서의 ‘呂’字들이 ‘리’를 위한 자리에 와 있기는 하지만, 과연 ‘呂’가 ‘리’를 위한 것인가, 또 그렇다면 왜 ‘呂’가 ‘리’로 읽히게 되었는가가 宿題로 남을 것이다.

刹刹每如邀呂白乎隱(禮敬諸佛歌)

塵塵虛物叱邀呂白乎隱(稱讚如來歌)

를 비교해보면 ‘呂’가 ‘里’의 誤記인 것 같기도 보이지만, 廣修洪養歌의 ‘佛前燈乙直體良焉多依’에서 ‘고티-’에 해당하는 語詞가 ‘直體’로 적혀 있음이 ‘里~呂’의 관계와도 비슷하여 性急한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혹 音韻論의 과제를 내포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 後考를 기다리며 斷定을 피한다.”

<김원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p.159>

③ 2) 러>리 (呂)의 發達

“鄉歌의 ‘川理/ 나리(讚者婆郎歌)’, ‘世理/ 누리(怨歌)’, ‘汀理/ 나리(讚者婆郎歌)’, ‘慕理尸/ 그릴(慕竹旨郎歌)’에서 ‘理’가 ‘리’음을 나타낸다는 견해에 대하여 異議를 제기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邀呂白乎隱/ 모리슬본(禮敬諸佛歌)’, ‘吾里/ 우리(請佛住世歌)’에선 ‘里’가 ‘리’음의 표기에 쓰이기도 한다. ‘理’, ‘里’는 우리의 傳統的 漢字音이 ‘리’이고 karlgren(1964)이 再構한 中國中古音은 lji: 이고, 周法高的 再構音은 li 이다. 이는 우리의 古代音 li(리)를 추정케 하는 것이다.

이 ‘里’, ‘理’를 鄉歌의 表記에서는 ‘呂’로 交替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의 ‘慕理尸/ 그릴’에 대하여 ‘慕呂白乎隱/ 그리슬본(禮敬諸佛歌)’, ‘世理/ 누리’에 대하여 ‘世呂/ 누리(常隨佛學歌)’, ‘邀呂白乎隱/ 모리슬본’에 대하여 ‘邀呂白乎隱/ 모리슬본(稱讚如來歌)’으로 교체된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梁柱東(1942)에서는 ‘呂’도 ‘리’음의 표기라고만 말하고 그렇게 읽히는 까닭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呂’의 傳統的 漢字音은 ‘려’이고 karlgren이 再構한 中國中古音은 liwo이고 周法高가 再構한 中古音은 lio이다. 이는 우리의 전통적 한자음으로 ‘려’나 ‘료’를 추정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呂’가 ‘리’음의 표기에 쓰인 것은 그 본래의 음이 二重母音이었던 것이 單母音化된 것임을 말한다.

‘邀呂白乎隱/ 모리슬본’과 ‘邀呂白乎隱/ 모리슬본’은 均如의 같은 普賢十願歌에서 ‘里’와 ‘呂’가 교체되고 있음을 본다. 이는 普賢十願歌의 시대가 국어의 ‘呂/ 러’음이 單母音化하여 ‘리’음으로 改新되는 過渡期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케 한다. 한편 ‘呂’는 均如의 鄉歌에만 나타나고 三國遺事의 香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遺事의 표기가 후대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풍현(2000), 「고대국어의 단모음화에 대하여」, 『구결학회 제24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집』, p.40>

④ “기존 해독에서는 ‘呂’를 ‘리’로 읽고143) 뒤에 의문법 종결어미가 생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그러나 본고에서는 ‘呂’가 의문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呂’를 ‘리’로 읽어 의문법 종결어미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거나 15세기 반말체의 ‘-리’와 연결 짓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만약 ‘呂’를 반말체 ‘-리’로 파악하거나, 아니면 종결어미 ‘-이’가 실현된 ‘-리’로 파악하면 높임의 등급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15세기 반말체의 경우 높임의 등급이 ‘하야씨체’ 아니면 ‘하야씨체’와 ‘하라체’ 중간 등급을 나타내는데, ‘呂’가 사용된 문맥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게 자문하는 것이므로 대우 등급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15세기 국어의 의문법 종결어미가 ‘-려·-리아·-리어’로 나타난 것을 고려한다면 ‘呂’를 ‘리’로 파악하기보다는 의문법 종결어미를 포함하고 있는 ‘려’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김지오(2012), 「균여전 향가의 해독과 문법」,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137-138>

⑤ “그렇다면 ‘呂’를 ‘리’로 읽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자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呂’는 上古音에서는 魚部, 中古音에서는 遇攝 開口3등 魚韻(上聲)에 속하는 來母의 글자로 핵모음이 /-a/ > /-o/ > /-y/ 쪽으로 재구되는 것이므로 ‘리’로 대응하는 音相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唐五代西北方音

자료에서 魚韻이 ‘-i’로 전사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면(羅常培 1933, 平山久雄 1967, 高田時雄 1988), 漢語音韻史에서 ‘呂’가 ‘li’로 읽힐 때가 있었던 것이다. 唐五代西北方音이 반영하고 있는 敦煌 지역의 漢字音은, 이 지역이 西域으로 가는 실크로드에 자리 잡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므로 印度를 오고 가는 많은 승려들이 지나고 머물렀던 곳의 언어를 반영한 것이다. … 이런 점을 고려하면 均如가 살았던 시기나 그 이전에 敦煌 일대의 漢字音이 승려들의 이동 등을 통하여 口傳을 통해서 고려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呂’가 ‘리’로 읽혔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遺事 鄉歌에서 쓰였던 ‘理’를 대신하여 均如 鄉歌에서는 새로이 ‘리’를 나타내기 위한 用字로 쓰였을 수 있다.”
 <이준환(2014), 「隨喜功德歌(普賢十願歌 제5) 解讀」, 『구결연구』 33, pp.331-332>

- ①, ②에서는 「呂」⇔「理·里」 교체의 까닭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¹⁾
- ③에서는 이에 대해 普賢十願歌 시대가 국어의 ‘呂/ 러’음이 단모음화하여 ‘리’음으로 개신되는 과도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모음화 규칙은 필요충분하게 입증된 규칙으로 보기 어려울 듯. 규칙 적용의 조건이 밝혀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 조건의 많은 예외들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④에서는 의문형 종결어미에 한정하여 「-呂」를 ‘-려’로 읽으려는 시도로 주목받은 바 있는데, 일견 타당한 견해일 수도 있지만, 자료 (1)의 ①~③의 예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설명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이준환(2014: 330-331) 참조).
- ⑤에서는 唐五代西北方音 자료에서 魚韻이 ‘-i’로 전사되는 경향에 주목하여 敦煌 일대의 漢字音이 승려들의 이동 등을 통하여 口傳을 통해서 고려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여 ‘呂’가 ‘리’로 읽혔을 가능성을 제안한 획기적인 논의로 주목되며, 필자도 동의함. 다만, 필자는 「呂」, 「體」, 「仁」의 한자음 문제를 모두 唐五代西北方音 자료로 풀 수 있다고 봄에서 차이남.²⁾

(3) 「仁」(신)⇒‘인’

① 7. 法界滿賜仁佛體

“禮敬諸佛歌에 나왔던 것과 같은 句節인데 다만 ‘隱’字가 ‘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다르다.”⁴¹⁾

41) 이 ‘仁’의 존재는 ‘里’에 대한 ‘呂’의 관계와 비슷하여 ‘隱’字의 轉訛일 가능성이 있다.”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p.172>

② 2.4. 因, 仁

“(27)은 ‘因’의 예로 단 2회이기는 하나 삼국유사에만 보인다. (28)은 ‘仁’의 예인데 균여전에만 나타나며 5회의 용례가 있다. ‘仁’의 15세기 한자음은 ‘신’이라는 점에서 ‘因’과 ‘仁’이 모두 ‘인’으로 읽힐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 볼 수도 있으나 (28)의 ‘仁’이 대개 관형사형어미(혹은 동명사어미) ‘-ㄴ’을 포함한 것으로 선어말어미 내지 용언 어간 뒤에 통합하고 있는바 ‘신’으로 읽기는 어렵다. (28口)의 ‘不喻仁’은 다음에 보이는 구결자료들(※不ㄴ 1)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형태인바 (28)의 ‘仁’을 ‘인’으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황선엽(2008), 「三國遺事와 均如傳의 鄉札 表記字 비교」, 『국어학』 51, p.292>

- 1) 황선엽(2008), 「삼국유사와 균여전의 향찰 표기자 비교」, 『국어학』 51의 2.3.에서는 유사 향가와 균여 향가에서의 「理」·「里」, 「呂」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생략한 채 “삼국유사의 ‘理’가 균여전에서는 ‘呂’로 주로 표기됨을 알 수 있다.”라고 한 점에서 ①, ②의 논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2) 이 밖에 양희철(2024), 「〈보현집원가〉의 원전비평 -일곱 오자를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 71, 한국중원언어학회, pp.151-156에서는 예경제불가와 칭찬여래가에서의 ‘邀里-’, ‘邀呂-’에서의 「里」, 「呂」에 대하여 「尸」의 오자로 보고 논의하고 있으나,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각주에 부기하는 정도에 그치고자 한다.

③ 2)不喻仁: ……

“仁은 관형사형 어미로 쓰인 것으로 遺事 鄉歌에서는 모두 ‘因’으로 표기되었던 것이다. 漢字音의 문제는 있으나 그 기능을 볼 때 중세국어 한자음에 근거하여 ‘신’으로 읽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因’의 독법과 같이 ‘인’으로 읽어 둔 바 있다(황선엽 2008).

均如 鄉歌에서 동명사 어미 ‘-ㄴ’을 나타내는 데에 쓰인 用字는 ‘隱(影母), 焉(影母), 仁(日母)’ 이렇게 3자가 보이고, 동명사 어미 ‘-ㄹ’을 나타내는 데에 쓰인 用字는 ‘尸(書母), 乙(影母)’ 이렇게 2자가 보인다. 이뿐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계사, 어미들을 나타내는 用字를 보면 주제 보조사의 用字로 쓰인 ‘隱(影母), 焉(影母), 恨(匣母)’, 대격 조사의 用字로 쓰인 ‘乙(影母), 盼(曉母)’, 속격 조사의 用字로 쓰인 ‘衣(影母)’, 처격 조사의 用字로 쓰인 ‘衣(影母), 於(影母), 阿(影母)’, 계사의 用字로 쓰인 ‘伊(影母), 以(以母), 逸(以母)’, 평서형 종결 어미의 用字로 쓰인 ‘也(以母)’, 감탄형 종결 어미의 用字로 쓰인 ‘也(以母), 耶(以母)’가 있다. 이들을 보면 ‘尸’와 ‘因’을 제외하고는 모두 喉音에 속하는 聲母를 用字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恨’, ‘盼’과 같은 用字를 제외하면 初聲이 모두 /ø-/인 것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因’을 중세국어 한자음과 같이 /z-/를 반영한 ‘신’으로 보기보다는 /ɲ-/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초성의 약화 내지 탈락을 더욱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 형태의 연결을 더욱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因’이 반영하고 있는 한자음은 /z-/를 반영한 중세국어 한자음보다는 /ɲ-/를 반영한 古層의 漢字音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 <이준환(2014), 「隨喜功德歌(普賢十願歌 제5) 解讀」, 『구결연구』 33, p.328>

①에서는 「仁」이 「隱」자의 轉訛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원인 규명이 없음.

②에서는 「仁」이 대개 관형사형 어미 ‘-ㄴ’을 포함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구결 자료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不喻仁’을 근거로 「仁」을 ‘인’으로 읽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있으나, 삼국유사의 ‘因’이 균여전에서 ‘仁’으로 표기된 원인에 대한 규명은 없음.

③에서는 황선엽(2008. 2011)의 논의를 이어받아 「仁」이 반영하고 있는 한자음이 /z-/를 반영한 중세국어 한자음보다는 /ɲ-/를 반영한 고층의 한자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呂」자의 한자음에 관한 논의에서의 당오대 서북방음과는 다른 층위의 한자음을 설명에 동원하고 있음이 문제가 될 수 있음.

3. 대안의 모색

①「呂」: MC. 遇合三上語來/力舉 (평성운: 魚韻)

「體」: MC. 蟹開四上齊透/他禮 (평성운: 齊韻)

「仁」: MC. 臻開○平眞日/如鄰

②당오대 서북방음에서의 변화와 평행됨에 주목

1) 羅常培(1933), 『唐五代西北方音』, p.45-46

③魚韻變 i 的現象

唐五代西北方音

i 攝 第 四

之方音所代表母	i										wi	
切韻韻部	脂三 [i]	之三 [i:]	支三 [iə]	微三 [iə]	微合三 [wēi]	魚三 [io]	脂合三 [wi]	支合三 [wiə]	微合三 [wēi]			
千	平脂 祇 ci 飢 ki 伊 yi 批 be	平之 持 ji 時 qi 慈 tsi 其 gi 貽 yi	平支 祇 pi 離 li 兒 gi 兒 gi 疲 be	平微 機 ki 去未 既 gi	平微 微 bi 微 byi 飛 p'e	平魚 楚 ci 祿 gi 車 ki 居 ki 上語 乘 ci 鉅 gi 去御 唐 gi 舉 yi	平脂 誰 qwi 去至 翠 ts'we	平支 隨 su'i	平微 威 ui 上尾 緯 we 去未 畏 ui			
字	北 bi 去至 弊 pi	上止 市 qi 耳 gi 子 tsi 起 ki 去志 自 dzi 錄 si	上紙 後 ci 去寘 義 gi									
文	二 ci 次 ts'i 自 dzi 錄 si											
大乘中宗見解	平脂 祇 ci 師 qi 實 tsi 上旨 祇 ci 死 si 去至 鼻 p'yi 比 bi 地 di 二 ci 自 ts'i 四 si	平之 之 ci 持 ji 慈 tsi 其 gi 貽 yi 上止 理 li 耳 gi 子 tsi 起 ki	平支 離 li 兒 gi 兒 gi 疲 be 上尾 幾 gi 依 i 去未 既 gi	平微 非 p'yi 去未 味 byi	平魚 如 zu 慮 zu 上語 與 yi 所 gi 去御 據 gi							
阿彌陀經	平脂 祇 ci 尼 ji 上旨 此 byi 去至 尼 li 教 ci 二 ci 四 si	平之 之 ci 持 ji 慈 tsi 其 gi 貽 yi 上止 子 tsi 去志 子 tsi 去志 子 tsi	平支 祇 pi 離 li 兒 gi 兒 gi 疲 be 上紙 此 ts'i 義 gi 謀 gi		平微 非 p'yi p'yi	平魚 如 zu 慮 zu 諸 ci 於 i 上語 所 gi, ge, gu 汝 zu 女 ji 與 yi, yu 去御 處 ci 去未 處 ci						
金剛經	平脂 尼 di 去至 至 ci 次 ts'i 四 si	平之 之 ci 持 ji 時 qi 思 gi 其 gi 而 gi 上止 以 yi 已 yi 子 tsi 去志 值 ji 事 gi	平支 知 qi 離 gi 兒 gi 上紙 是 gi 此 ts'i 解去 賢 pi 義 gi 謀 gi		平微 非 p'yi	平魚 如 ze 慮 he'i 諸 ci 於 i 上語 所 gi, ge'i(?) gu, gu'i(?) 去御 女 ji 與 yi 去未 去 ki						

2) 邵榮芬(1963/1997),「敦煌俗文學中的別字異文和唐五代西北方音」,『邵榮芬音韻學論集』, pp.280-343

㉑日母在-i韻前失聲母

(九)日母和疑、影、以三母的關係

日母和疑、影、以三母都有通代的例子。

1. 日、疑代用例:

魚 疑 如 日 1 變 189 山

2. 日、影代用例:

如 日 於 影 1 變 184 山
於 影 而 日 1 變 848 蘇

3. 日、以代用例:

如 日 與 以 1 變 274 下(P.3350;S.5949)
已 以 如 日 1 變 274 下(S.3877;P.3350)
與 以 而 日 1 變 275 下(P.3350;S.5949)
以 以 汝 日 1 變 295 太 (S. 2682, 潛字
80;P.2999)
與 以 汝 日 1 瑣 117 二十

⇒「仁」=「-인」※단, 韻尾 /-n/의 문제는 있음.

㉒魚韻一部分字和虞韻不分, 一部分字和止攝開口不分

(三)魚、虞和止攝各韻相混

魚、虞和止攝各韻代用例有下列四項。

1. 支、魚代用例:

兒 支 如 魚 3 變 235 孔 (S. 395; S. 3883), 校錄 98(P.2713;乃字 74), 170 (S. 2947; P. 3168)
枝 支 諸 魚 1 變 289 太(P.2999;潛字 80)
知 支 諸 魚 6 變 290 太(S. 548, P. 2999, 潛字 80; P. 2999), 瑣 194 四一, 校錄 80, 123 (同字 70;P.2963)163
諸 魚 知 支 1 變 250 鶯(P.2653;P.2491)
諸 魚 支 支 1 變 715 大目(P.3485;S.2614)
如 魚 爾 紙 1 雜錄 90 下, 飲
汝 語 兒 支 1 變 232 孔(P.3883;P.3833)

⇒「呂」=「理·里」

㉓止攝開口和齊韻開口不分

(四)止攝和齊韻的關係

止攝各韻和齊韻代用的例子有下列三項。

1. 支、齊代用例:

羈 支 繼 齊 2 變 572 維 2(華 2, 120), 631 維 5(華 2, 210)
菲 支 藜 齊 1 變 731 大目(華 1, 43)
羈 支 計 齊 1 校錄 92

2. 脂、齊代用例:

地 至 帝 齊 1 校錄 137
第 齊 地 至 4 變 199, 203, 204, 205 虎

參考例: 梨→黎(1)變 609 維 4(華 1, 41)/黎←梨(1)變 156 秋/批←枇(1)變 720 大目/黎←梨(1)變 809 秋

⇒「體」=「-티-」※단, ‘佛體→부터’는 한국한자음의 문제인 듯.

③당오대 서북방음과의 접촉 가능성

1) 나말여초: 도당(渡唐) 숙위학생(宿衛學生) 및 유학생의 증가

- 숙위학생은 당나라의 국자감에 입학하여 수학하였다. 714년(성덕왕 13)에 생도(生徒) 7인이 파견되었는데, ‘생도’는 학관(學館)의 학생을 가리키므로, 국자감 생도로 보인다.
- 경덕왕 때 신라 관서와 군현의 이름을 한식(漢式)으로 고친 것은 숙위학생이 당의 문물과 제도를 신라에 적용한 결과인 듯하다. 다만, 789년(원성왕 5)에 당에서 학생이었던 자옥(子玉)이 국학(國學)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수(少守)라는 지방관을 맡게 되면서, 대체로 6두품 출신이 관리 진출을 위해서, 또한 왕실이 도당유학한 6두품 출신을 중용하여 왕권 강화를 꾀하면서, 진골 출신의 숙위학생 보다는 6두품 출신의 도당유학생이 크게 증가하였다.
- 특히 821년(헌덕왕 13)에 김운경(金雲卿)이 신라 유학생 중 처음으로 국자감의 졸업시험인 생도시(生徒試) 가운데 빈공진사시(賓貢進士試)에 급제하면서, 도당유학생 중에 빈공진사시 급제 출신도 증가하였다.
- 『동사강목(東史綱目)』에는 신라 말까지 58인, 당 이후 오대에는 32인이 빈공진사시에 급제하였다고 하였다. 숙위학생은 국가 간 인적 교류 차원에서 파견되었고 칙령으로 입학을 허가하였으므로, 도서 구입비는 신라와 당이 공동 부담하였으나 체재 비용은 당연히 당나라 조정에서 부담하였다. 따라서 도당유학생 역시 국비(國費) 유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 837년(희강왕 2) 3월 숙위 왕자를 당에 보내면서, 당 조정에 옛 사례에 따라 체재하고 있거나 새로 입당하는 학생과 수령 216인에게 옷값과 식비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을 정도였다.
- 의상과 함께 당나라에서 공부했던 승전(勝詮), 밀교에 정통하며 당나라 고종의 딸을 치료해서 유명해진 혜통(惠通), 신라가 당나라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해 실현했다는 명랑(明朗), 당나라와 주변 나라들에 명성을 떨친 순경(順璟), 도윤(道允), 순지(順之), 태현(太賢), 현휘(玄暉) 등이 유학을 마친 뒤 신라에 돌아와 활동한 승려들이다.³⁾

2) 고려 광종대: 후주(後周) 출신 쌍기(雙冀) 등의 입국과 과거제의 실시, 균여 활동기



3. 맺음말

균여 향가 속 특이 음독자 「呂」, 「體」, 「仁」의 문제는 당오대 서북방음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숙위학생” 항목에서 발췌 인용.

[참고 문헌]

-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지오(2012), 「균여전 향가의 해독과 문법」,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276.
- 남풍현(2000), 「고대국어의 단모음화에 대하여」, 『구결학회 제24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집』, 39-45.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 박진호(2008), 「향가 해독과 국어문법사」, 『국어학』 51, 313-338.
- 백두현(1995), 「향가 입력」(ms.), 1-57.
- 양주동(1942/1954), 『고가연구』, 박문출판사.
- 양희철(2024), 「<보현십원가>의 원전비평 -일곱 오자를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 71, 한국중원언어학회, 149-169.
- 이준환(2014), 「隨喜功德歌(普賢十願歌 제5) 解讀」, 『구결연구』 33, 311-359.
- 황선엽(2008), 「三國遺事와 均如傳의 鄉札 表記字 비교」, 『국어학』 51, 279-311.
- 羅常培(1933), 『唐五代西北方音』, 上海: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單刊甲種之十二.
- 邵榮芬(1963/1997), 「敦煌俗文學中的別字異文和唐五代西北方音」, 『邵榮芬音韻學論集』, 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280-343.
- 高田時雄(1988), 『敦煌資料による中國語史の研究 -九・十世紀の河西方言-』, 東京: 創文社.